

고하 송진우는 건국틀 닦은 거목

(1990.5.4. 동아일보 기사)

올해는 교육가, 언론인, 정치가로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 싸우고 대한민국 건국의 기초를 닦는데 크게 기여한 古下 宋鎭禹선생의 탄생 1백주년(8일)이 되는 해.

이를 기념하기 위해 고인이 사장으로 재직했던 동아일보사에서는 「古下 宋鎭禹全集」을 출간하고 3일 오후에는 탄신 1백주년 추모강연회를 가졌다.

고하는 1890년 전남 담양에서 태어나 1906년 창평의 영학숙에서 인촌 김성수선생 등과 함께 신학문을 배웠고 일본에 유학, 明治大學 법과를 1915년에 졸업했다.

귀국 후 인촌이 중앙학교를 인수하자 교장에 취임,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불어넣었으며 3·1운동 때는 48인의 한사람으로 체포돼 1년 반의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1921년 동아일보사가 주식회사로 개편되자 3대 사장으로 취임, 40년 8월 10일 동아일보가 강제폐간될 때까지 20여년간 사장, 고문, 주필 등을 역임했다.

해방 후에는 한민당을 결성해 민주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하다 45년 12월 30일 한현우의 저격으로 별세했다.

3일 열린 추모강연회에서 동아일보 기자로 고하와 함께 일했던 이상돈(李相敦)씨(제헌의원)는 『최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채 고하의 업적을 폄하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개탄하고 『고하는 일편단심 조국을 위해 일하다 비명횡사하신 위대한 민족지도자로 그분의 업적은 정당하게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어 고하는 평소 『정치는 고등상식으로 잔피부리지 않고 정정당당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고 회고하면서 고하의 철학은 오늘날의 정치지도자들에게도 큰 교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古下 전기 집필을 위해 자료수집과 증언을 모았던 서정주(徐廷柱)씨(시인)는 『3·1운동 준비과정에서 일부 인사들이 이탈하려 할 때 고하가 강력하게 제지해 다시 추진력을 얻어 3·1운동이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는 증언을 현상윤(玄相允)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고 소개하고 이것은 고하의 인품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예라고 말했다. 서씨는 또 『고하는 일제 때 우리 민족의 분열을 막고 단결된 힘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일화를 남겼다』면서 이러한 사실을 회고해 보면 고하의 애국 애족 정신이 가슴깊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3백여명이 참석했다.

고하 송진우 전집(古下 宋鎮禹 全集)

동아일보 창간 70주년과 고하 탄신 1백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출간된 전집은 고하의 전기, 문집, 평전 등 3권.

고하의 전기인 「독립을 향한 집념」은 1965년 동아일보사에서 펴냈던 고하 전기를 증보해서 펴낸 것이다. 65년판은 6·25 때 주요자료가 없어진 상황에서 당시 생존자들의 구술과 일부 자료를 토대로 쓰여진 탓으로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자료를 보완하고 문장을 쉽게 한글로 풀어 썼다.

고하 관계자료문집인 「거인의 숨결」은 고하가 일제 하에서 직접 남긴 여러가지 글들과 고하와 관련된 대담, 인물평, 일화 등 관련 자료를 한데 묶은 것.

이중 이책에 실린 대표적인 것들은 1915년 「학지광(學之光)」에 기고한 「사상개혁론」, 1925년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동아일보에 연재한 「세계대세와 조선의 장래」 등.

「고하 송진우 평전-민족민주주의 언론인 정치가의 생애」는 김학준(金學俊)교수가 그동안 수집한 자료와 연구결과를 토대로 집필한 평전. 김교수는 서문에서 『송진우는 기본적으로 교육가이면서 언론인이었다. 일제치하에서 그가 참여했던 교육활동과 언론활동은 처음부터 민족운동의 일환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이책은 일제하에서 전개된 우리 겨레의 민족운동의 큰 흐름속에서 그의 위상을 파악하고자 했다』고 밝히고 있다.